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국회 본회의 통과(2026.04.10.)]

전세버스는 지금까지 4만여 대가 대중교통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송 현장을 책임지며 국민 이동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수송 인원 규모 또한 철도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전세버스는 이미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는 여전히 행락철 관광버스라는 낡은 인식 속에서 정부 정책과 지원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전세버스업계의 현실과 역할을 외면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은 전세버스업계에 큰 경영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업계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운행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강력히 건의한 끝에 이번 추경 예산에 약 460억 원 규모의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이 반영되는 뜻깊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반영을 위해 힘써주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님, 한정에 정책위원장님, 맹성규 교통위원장님, 진성준 예산결산위원장님, 박용갑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전 전세버스업계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버스는 더 이상 주변적인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일상과 산업, 지역사회와 관광, 각종 단체 이동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교통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전세버스업계가 더 이상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세버스업계는 앞으로도 안전운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버스가 합당한 평가와 정당한 지원을 받는 당연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전)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현)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오 성 문